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0 익산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혼꽃
수상내역	장려상
작가	이원희
주제	아사달아사녀
제출형식	희곡 대본
스토리 구성 (plot)	<p>서장- 두 발원</p> <p>1장 - 불멸의 돌꽃을 위하여</p> <p>2장 - 생각 생각이 떠나지 않는 마음</p> <p>3장 - 사랑이여, 언제 오시나.</p> <p>4장 - 첫 눈길</p> <p>5장 - 당신이 보고 싶어요.</p> <p>6장 - 달빛 금실로 사랑을 깎는 마음</p> <p>7장 - 석송의 죽음</p> <p>8장 - 아사달이라는 탑을 세우겠어요.</p> <p>9장 - 꼬달리는 번뇌</p> <p>10장- 어머니, 사랑이 제 길입니다.</p> <p>11장- 갈까 보다, 임 찾아 갈까 보다.</p> <p>12장-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가두고</p> <p>13장- 일심원력, 화엄의 꽃</p> <p>14장- 달금이 아가씨</p> <p>15장- 왜 당신의 마음은 담장에 둘러쳐져 있나요.</p> <p>16장- 불멸의 법신, 혼꽃이 되다.</p> <p>17장- 그리움은 서녘 노을로 지다</p> <p>종장- 슬픈 환상, 나는 너를 여의지 않았어.</p>
기획의도	<p>익산지역의 석조문화의 원류를 역사적 사료에 기초해 공연예술화하고자 했다.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은 아사달이라는 대공이 만든 불멸의 혼꽃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비련의 사랑, 혼꽃을 개화하기 위해 일념정진한 아사달, 원주와 달금이의 사랑을 극복한 아사달의 장인정신을 무대화함으로써 불멸의 작품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극복의 결과임을 보여주고자 했다.</p>

창작희곡

혼꽃

■ 등장인물

아사달

아사녀

석승- 아사달의 스승, 아사녀 아버지

월이부인- 신라 이찬의 부인

달단- 이찬의 딸

죽죽- 달단의 몸종

직소- 석승의 제자

만성- 석승의 제자

강일- 불국사 스님

원주- 불국사 스님

석공들(행자스님, 행인, 바라춤 추는 스님들, 목도꾼들 겸역)

■ 장면별 타이틀 시놉시스

서장- 두 발원

1장 - 불멸의 돌꽃을 위하여

2장 - 생각, 생각이 떠나지 않는 마음

3장 - 사랑이여, 언제 오시나.

4장 - 첫 눈길

5장 - 당신이 보고 싶어요.

6장 - 달빛 금실로 사랑을 깎는 마음

7장 - 석송의 죽음

8장 - 아사달이라는 탑을 세우겠어요.

9장 - 꼬달리는 번뇌

10장- 어머니, 사랑이 제 길입니다.

11장- 갈까 보다, 임 찾아 갈까 보다.

12장-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가두고

13장- 일심원력, 화엄의 꽃

14장- 달금이 아가씨

15장- 왜 당신의 마음은 담장에 둘러쳐져 있나요.

16장- 불멸의 법신, 혼꽃이 되다.

17장- 그리움은 서녘 노을로 지다

종장- 슬픈 환상, 나는 너를 여의지 않았어.

■ Synopsis

달빛 하얗게 내린 밤, 완공된 다보탑 주위를 돌며 불국사 강일과 원주스님이 탑돌이를 한다. 아사달은 고향에 있는 스승 석승과 아내 아사녀를 생각하며 탑신까지 올라간 석가탑 앞에서 발원하고는 백팔배를 하다가 기진해 쓰러진다.

석승과 아사녀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돌을 다듬던 아사달에게 석승은 망치와 손이 하나가 되어 몰아일체로 돌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사녀는 아버지 석승에게 아사달의 재주가 뛰어난데 너무 엄하게 대한다고 하자, 석승은 하늘은 올라갈수록 높은 법이라고 한다. 석승이 나가고 아사달과 아사녀가 그윽하게 사랑을 나눌 때 석승의 제자 만성이 들어와 석승이 아사달을 찾는다고 전한다.

서라벌 월성에서 사람이 찾아와 불국사 석탑을 쌓을 석공을 요구하자, 석승은 아사달을 지목한다. 이에 도석공인 직소는 불만을 터뜨리고, 아사녀는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사달을 먼 곳으로 보내는 아버지를 야속하게 생각한다. 두 개의 탑을 축성하려면 삼년은 족히 걸릴 거라는 석승의 말에 아사녀는 실신한다.

달밤에 백팔배를 하다가 쓰러진 아사달을 돌보는 원주스님. 아사달이 아사녀를 꿈결에서 보고는 반사적으로 ‘아사녀!’를 외친다. 원주는 아사달의 식은땀을 닦아주며 ‘생각 생각이 떠나지 않는 마음이 곧 꿈’이라고 한다.

병색이 짙은 석승은 딸 아사녀에게 아사달을 서라벌에 보내 미안하다고 한다. 석승의 병세가 악화되고 집안 형편은 어려워지는데, 직소가 찾아와 아사녀에 다짜고짜 자기와 살자고 말한다. 아사녀는 인두걸을 쓰고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며 울면서 뛰어나간다.

수려한 다보탑을 보기 위해 신라 이찬공의 부인 월이와 딸 달금이가 불국사를 찾는다. 다보탑을 보며 연신 탄복을 하면서 석공 아사달의 재주를 칭찬한다. 대웅전 뒤뜰에서 돌을 자르고 있는 아사달을 본 달금은 한눈에 반한다. 아사달에게 돌일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을 묻지만 아사달은 일에 몰두할 따름이다. 아사달이 돌일을 하는 새에 무대상단에 석승이 나타나 돌일의 과정을 말한다. 한편 달금의 몸종 죽죽이가 아사달을 돌장이라고 하자, 달금은 그녀를 나무라며 대공이라고 정정시킨다. 강일스님의 소개로 월이부인이 아사달을 만나 대공이라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직소의 지휘로 석공들이 목도꾼 노래를 부르며 돌을 운반한다. 석공들은 스승 석승의

건강과 양식을 걱정하나, 직소는 무연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한편, 아사녀는 정안수를 떠놓고 비손을 하며 아사달이 무사무탈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기를 축원한다.

다보탑 축성식으로 불국사 뜨락에 등불이 가득하다. 죽죽이가 등타령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까불까불한다. 강일과 원주스님, 아사달 그리고 월이부인과 달금이 축성식 무대에 앉고, 앞에서는 불국사 스님들이 바라춤을 추면서 탑돌이를 한다. 달이 돋고 밤이 되자 모두 빠져나가고, 아사달 홀로 다보탑 앞에 정좌한 채 묵언의 발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달금이 본다.

죽음의 그림자가 감도는 석승의 얼굴. 차가운 겨울날, 석승은 바깥에 나와 새봄을 기다리며 아사달을 생각한다. 만성은 쌀짐을 지고 들어와 아사녀에게 쌀을 주고 봉화사 석탑 일에 대해 석승에게 말한다. 석승은 만성에게 정질의 요령을 강조하고 먼산바라기를 한다. 아사녀가 아사달의 소식이 없어 불안해하자, 만성은 일도일념으로 탑을 쌓다 보면 일이 늦어질 수 있다며 위로한다. 석승이 인기척이 없자, 가까이간 아사녀와 만성은 석승이 죽은 걸 알고는 통곡한다. 흰 눈이 돌가루처럼 날리는 가운데 석승의 모습은 돌을 다듬고 있는 듯하다.

탑일을 하던 아사달은 무대 상단에 얼핏 떠오른 석승을 본다.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몇 차례, 아사달은 긴가민가하면서 정질을 하다가 망치로 자신의 손등을 찍는다. 원주가 이를 보고는 상처를 감싸주고, 자신이 만든 누비옷을 아사달에게 준다. 달금이가 들어오다가 몸을 감추고 이들을 보다가, 자신이 해온 아사달의 옷을 만진다. 죽죽이가 나타나자 원주는 들어가고, 달금은 아사달에게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면서 자신도 탑을 공들여 올리겠다고 한다. 아사달이라는 이름의 탑을.

아사달의 뇌리에 번뇌가 가시지 않는다. 무대 상단에 아사녀, 달금 아가씨, 원주스님이 차례로 떠오른다. 강일스님은 아사달의 머리를 깎으면서 번뇌에서 벗어나라며 견성하라고 한다. 석승이 나타나 마궁에 들어앉아 흔들리는 아사달을 준엄하게 나무란다.

월이부인이 딸 달금이가 험한 낭도를 마다하고 오로지 아사달에게 마음이 간 것을 타박한다. 그러나 달금이의 아사달에게 대한 생각은 견고하기만 하다. 한편, 아사녀는 서라벌 불국사에 있는 아사달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선다. 비 내리는 저녁, 아사달은 비를 맞으며 다보탑 앞에 정좌하고 있고, 강일은 원주스님을 죽비로 내리치며 참회게송을

외우게 한다.

범종소리 은은한 밤, 달금이 아사달을 만나기 위해 불국사를 찾는다. 달금은 아사달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아사달은 탑이 완공되는 날, 스승과 아내가 있는 고향으로 갈 것이라며 단호하게 달금을 거절한다. 그러나 달금은 아사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겠다고면서 우긴다. 아사달은 강일스님에게 사갓집 사람들의 불국사 출입을 탑이 완공될 때까지 막아달라고 요구하고는, 석가탑 주위로 하얀 천을 두른다. 강일은 달금에게 석가탑이 완공되면 불국사에 다시 오라며 행자스님더러 불국사 산문을 지키라고 한다.

아사달은 석가탑 앞에서 합장 배례를 하고는 일심원력을 모아 탑을 축성해가기 시작한다. 한편, 집을 나온 달금이를 찾기 위해 죽죽이가 불국사를 찾지만 행자스님의 거절로 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천신만고 끝에 서라벌에 당도한 아사녀는 마침 지나가는 달금이에게 불국사가 어디냐고 묻는다. 죽죽이는 남루한 행색의 아사녀를 보면서 거지가 절밥 얻어먹을 요량으로 불국사를 찾는가 보지만 어림없는 것이라 한다. 죽죽이가 달금에게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달금이 절대 돌아갈 수 없다며 완고하게 나가자, 죽죽이는 달금 아가씨를 따라다니겠다고 한다.

아사녀 또한 불국사 산문에서 거절당한다. 행자스님은 오리썸 떨어진 곳에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다리면 석가탑의 그림자가 떠오를 것이고 그때 불국사 출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아사달은 돌가루를 맞으며 돌을 다듬고 이속고 돌을 정성들여 쌓기 시작한다. 찰주에 수연과 용차를 올리고 보주로 석가탑을 완성한다. 이와 동시에 스님들의 구송이 터져나오고, 범패소리가 차오른다. 강일은 완성된 석가탑을 보면서 불멸의 법신이요, 아사달이라는 대공의 혼꽃이라고 한다. 석가탑에 내린 하얀 빛무리가 윤이 나듯이 밝아지는 가운데 아사달은 합장 배례를 한다.

연못에서 하염없이 아사달을 기다리는 아사녀는 수양버들 그림자가 얼비치는 연못을 보면서 시름에 젖는다. 행인이 지나가자 불국사 석탑 소식을 묻고, 행인은 석탑은 완공되어 축성식도 끝났다고 하자 아사녀는 아사달의 소식을 묻는다. 행인이 아사달은 어떤 여자와 이미 마음을 맞췄다고 말하자 아사녀는 이승의 인연이 끝났다면, 저승에서 아사달의 혼백을 기다리겠다고 결연한 표정으로 신발을 벗고 연못에 몸을 던진다. 아사녀가 서라벌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아사달은 부랴부랴 연못에 간다. 아사녀가 벗어놓은 신발을 보고서 아사달은 실의에 빠지는데 문득 앞산 바위가 어른거리면서 아사녀

의 형상이 나타났다 사라지자 아사달은 미친 듯이 바위에다가 아사녀의 모습을 새긴다. 달금과 죽죽이가 연못으로 온다. 그들은 연못 앞 바위에 새겨진 아사녀의 형상을 보고 깜짝 놀란다. 아사녀가 아사달을 만나러 왔다는 걸 달금이가 알자, 죽죽이는 달금이가 공연히 헛물만 켜다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한다.

서장

- 두 발원 -

무대 밝아지면 다보탑 떠오른다.
하얗게 부서진 달빛 내리고, 그 위로 목탁소리 잔잔히 깔린다.
불국사 스님 강일과 원주가 구송을 하면서 탑돌이를 한다.

동해라 동산에 한 절이 있으니
화엄 불국이라 이름했네.
청운교 백운교 다보탑 석가탑
연화세상 만들었네.
화엄에 손을 대고 불국에 마음 돌려
연꽃 속에서 스스로 평안하네.

아사달은 탑신부까지 완성된 석가탑 앞에서 좌정한 채 발원한다.

아사달 스승님이시여!
천하에 비루한 이 몸,
뉘고 또 뉘아 수신공덕으로 석가탑을 이루겠사오니
부디 강건하소서.

두 스님, 목탁소리에 염송을 하면서 다보탑 주변을 돈다.

아사달 아사녀여!
그대가 보고 싶어 매일매일 눈을 씻고 또 씻으오.
그대의 소리를 듣고 싶어 귀를 씻고 또 씻으오.
돌가루 속에서 어렴풋한 그대의 모습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
아, 아사녀여! 이 석탑에 보주가 오르거든 내 사랑도 가리다.

아사달, 석탑 앞에서 백팔배를 한다.
일배, 두배, 삼배, 사배…….
기진한 아사달 쓰러진다.
탑돌이하던 두 스님, 놀라서 아사달에게 다가간다.

강 일 대공! 대공! 정신 차리시오!

쓰러진 아사달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두 스님
달빛 내린 불국사 뜨락에 범종소리 밀려온다.

1장

- 불멸의 돌꽃을 위하여 -

석승과 아사녀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아사달, 돌을 다듬고 있다.

석 승 살결이어야 하느니라. 잔다듬이 더 정교해야지!

석승의 소리에 아사달 일어나 예를 갖추다.

아사달 스승님! 나오셨습니까?

석 승 손에 든 게 무엇이나?

아사달 날망치입니다.

석 승 아니다!

아사달 스승님?

석 승 손에 쥐고 있는 걸 잊어라! 망치가 곧 너이고 네가 곧 망치임을 잊었느냐!
물아일체라 하지 않았더냐! 네 마음과 혼이 그 망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사달 잘 알겠사옵니다, 스승님!

아사녀 아버님! 아사달이 석불사 석탑도 훌륭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석 승 하늘은 올라갈수록 더 멀어지는 법. 결코 자만해서는 안 돼!

아사달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석승, 나간다.

아사녀 속으로는 가장 아끼시면서 괜히 그러셔.

아사달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주고, 예쁜 자식에게 매 한 대 더 준다고 하잖아.

아사녀 피! 사위에게 살갑게 대하면 좀 좋아?

아사달 스승님 마음 잘 알잖아. 근데 이 더위에 왜 나왔어?
 아사녀 아참! 내 정신 좀 봐. 보리 개떡 좀 쑤어왔어.
 아사달 개떡? 내가 미운가 보지?
 아사녀 무슨 말야? 밋다니?
 아사달 아까 말했잖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아사녀 (토라진다.) 아사달이 배고플 것 같아 그렇지, 미워서 그러나 뭐?
 아사달 하하하. 요 토라진 볼 좀 보아. 잔뜩 부었네. 이 정으로 좀 다듬어줄까?
 아사녀 뭐라구? 내가 뭐 돌인가?
 아사달 왕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아사녀 정말?
 아사달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보옥!
 아사녀 (이마에 손을 집는다.) 아, 어지러워!
 아사달 (놀라) 아사녀! 그늘 속으로 들어가. 햇빛…….
 아사녀 (아사달의 입을 막으며) 아사달 사랑에 취해.
 아사달 아사녀!
 아사녀 아사달!
 아사달 너 나 되고
 아사녀 나 너 되고
 아사달 천 년 만 년 돌처럼 썩지 않는 사랑이 되자.
 아사녀 응!

아사달, 아사녀를 껴안는다.

석승의 제자 만성 들어오다 이들을 보고 헛기침을 한다.

만 성 아무리 좋기로써니 별건 대낮에……. 아, 햇빛에 부끄럽지도 않아?
 아사달 어?
 만 성 스승님이 찾으시네!
 아사달 스승님께서?
 아사녀 조금 전에 다녀가셨는데 뭘 일이지?
 만 성 월성궁에서 사람이 왔다네.
 아사달 월성궁? 서라벌 말인가?
 만 성 그렇다니까!
 아사녀 (궁금해 한다.) 무슨 일이지?

아사달 왜 왔다고 하던가?

만 성 난들 알겠나? 얼른 가보거나 하게.

만성, 나간다.

아사달과 아사녀, 서로를 본다.

석송의 집

석 송 서라벌 월성궁에서 사람이 왔느니라.

아사녀 아버님, 무슨 일로 왔다고 합니까?

석 송 서라벌 불국사에 탑을 세우는데, 석공을 부르러 왔다

아사녀 예? 석공은 서라벌에도 있을 텐데 어찌 이 먼 곳까지…….

만 성 그거야 여기 석공이 유명하니까 그렇지요, 아가씨! 미륵사나 왕궁 석탑이
보통 석탑입니까?

석 송 아사달이 가거라!

직 소 (의외라는 듯) 스승님?

아사녀 아버님! 도석공인 직소 오라버니가 있잖습니까?

석 송 서라벌에서 여기까지 왔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백제 명공을 구하기 위함
이 아니겠느냐!

만 성 여간한 공사가 아닌 듯 하옵니다.

석 송 그래서 하는 말이다!

직 소 그런 큰 공사는 도석공인 제가 마땅히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 송 불탑은 부처님을 모시는 거룩한 신물이다. 네가 제주 있는 도석공이긴 하
나 찬찬하기는 아사달만 못해!

아사녀 초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시다, 아버님!

석 송 네 신랑을 먼 곳까지 보내는 네 심정을 안다. 하지만 석공은 돌에 일념을
모아야 대공이 되고, 명공이 되느니라. 허니, 이 아비의 말을 거스르지 말
아라.

만 성 아가씨! 스승님의 뜻에 따르십시오. 다 생각하시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아사달 손끝이 얼마나 야무집니까? 형님 안 그런가요?

직 소 (편치가 않다.) 손끝 야무진 건 내가 더 하네!

석송, 못마땅한 표정이다.

석 승 탑은 우주의 중심이니라. 우주의 기운이 없다면 탑은 그저 돌무더기일 뿐이다. 오로지 한 생각으로 해야 할 것이야!

아사달 잘 알겠사옵니다, 스승님!

석 승 탑을 세우는 일은 마음을 세우는 일이다.

아사녀 아버지! 꼭 아사달이 가야한다면, 소녀도 따라가겠습니다.

석 승 불탑은 공덕이어야 한다. 네가 따라나서면 맑은 공덕이 이루어지겠느냐!
아사달아!

아사달 예, 스승님!

석 승 조상 대대로 이어온 왕궁 석공이니라. 한치 누가 되지 않도록 혼을 쏟아야 할 것이야!

아사달 어찌 그걸 모르겠사옵니까! (직소에게) 형님, 백제 석공의 자긍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소, 못마땅한 표정이다.

아사녀 그럼, 언제 떠나는 것이옵니까?

석 승 내달 초 사흘날이다.

아사녀 예? 내달 초 사흘? 그렇게 빨리요?

석 승 탑을 두 개 올린다 하니 삼년은 걸릴 것이니라. 허니 아사녀 너도 그리 알거라.

아사녀 예? 삼년이라구요?

아사녀, 이마를 집고 비틀거린다.

아사달 아사녀! 아사녀!

2장

- 생각, 생각이 떠나지 않는 마음 -

승방에 누워있던 아사달 벌떡 일어난다.

아사달 아사녀! 아사녀!

원 주 대공! 정신이 드십니까?

아사달 (원주를 붙잡고) 아사녀!

원 주 (웃으며) 원주입니다, 대공! 고향 꿈을 또 꾸셨군요. 이 식은땀 좀 보아.

원주, 식은땀을 닦아준다.

아사달 미안합니다, 스님!

원 주 무슨 말씀요. 미안한 건 우리 스님들이죠. 한 말씀 여쭙도 되겠습니까?

아사달 말씀하십시오, 스님!

원 주 탐 쌓는 일을 왜 밤에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사달 탐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기운은 낮보다 밤에 더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 주 그렇군요. 달빛 아래서 돌을 쪼는 모습이 너무 신비스러워 여쭙본 겁니다.

아사달 그리도 신비하게 보였던 말입니까?

원 주 대공께서 망치질을 하는 게 아니라 탐하고 말을 나눈다고 강일 스님께서 말씀 하더군요. 소승도 그리 생각하고요.

아사달 …….

원 주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원주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웃으며) 문수보살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테니 육고기는 드릴 수 없지만 다른 것은 소승이 해드리겠습니다.

아사달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원 주 참! 내일 이찬공의 부인과 따님이 불국사에 오신다 합니다.

아사달 이찬이라면 월성궁에서도 높으신 분이 아니옵니까?

원 주 불국사의 큰 시주님이시지요.

아사달 네.

원 주 얼마 전에 완공한 다보탑을 보러 오신답니다. 소승이 너무 수선을 떨었습니다. 좀더 쉬시지요.

원주, 합장하고 나간다.

아사달도 합장으로 예를 표한다.

원 주 (나가다 말고) 염염불이심(念念不離心)입니다.

아사달 무슨 뜻입니까? 스님.

원 주 생각, 생각이 떠나지 않는 마음이 곧 꿈입니다.

원주 나가고, 아사달 사념에 잠긴다.

3장

- 사랑이여, 언제 오시나. -

석송의 집

병색이 짙은 석송, 기침을 간간히 한다.

아사녀 아버지! 어서 껴차하셔야지요.

석 송 네가 고생이 많구나.

아사녀 만성 오라비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 괜찮습니다.

석 송 (기침) 아사달이 떠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아사녀 이태째입니다.

석 송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다오.

아사녀 아웁니다, 아버지!

석 송 고맙구나. 직소랑 만성이는 자주 오느냐?

아사녀 둘 켜다고 요즈음은 뜸합니다.

석 송 둘을 케?

아사녀 연화사에서 석탑을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석 송 둘이 반반씩 섞였으면 오죽 좋을까?

아사녀 무슨 말씀이옵니까?

석 송 직소는 너무 빠시고, 만성이는 너무 느릿해서 하는 말이다.

아사녀 그래도 아버님의 훌륭한 제자가 아니옵니까?

석 송 아사달이 기증 제일이다.

아사녀 그래서 아버님이 제 신랑감으로 일찌감치 점 찍으셨잖아요.

석 송 네 마음이 나보다 먼저 아사달에게 간 게 아니었냐?

아사녀 어머? 아버님이 그걸 아셨어요?

석 송 허허허. (기침) 부모만큼 자식을 아는 이가 또 있더냐?

아사녀 …….

석 송 또 아사달 생각이구나.

아사녀 한시인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석 송 이 아버가 너를 못 힘들게 하는구나. (기침)

아사녀 아버지! 소녀는 괜찮으니 어서 일어나셔야지요.

석승, 기침을 연거푸 해댄다.

아사녀 아버지!

석 승 괜찮다.

아사녀 안 되겠어요. 오라버니들을 부르겠어요.

석 승 괜찮다 해도 그런다. 들어가 좀 누워야겠구나.

아사녀 그러세요. 이럴 때 아사달이라도 있었으면 오죽 좋을까.

아사녀, 석승을 부축하며 나간다.

직소, 들어와 주변을 살펴본다.

잠시 후, 아사녀 나온다.

아사녀 오라버니? 언제 오셨어요?

직 소 형편이 말이 아니군.

아사녀 그렇지요, 뭐.

직소, 아사녀의 손목을 잡고 한쪽으로 간다.

아사녀 왜 이러세요? 큰 오라버니!

직 소 아사녀! 나하고 살자! 이 마음 오래되었다.

아사녀 오라버니?

직 소 스승님도 저리 병세가 깊어 언제 돌아가실 줄도 모르잖는가.

아사녀 어찌 그런 말을? 이 아사녀에게는 아사달이 있어요!

직 소 아사달은 돌아오지 않을 걸세.

아사녀 왜 그런 말씀을 해요? 아사달이 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직 소 아사달이 탑을 만들고 나면 분명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야!

아사녀 아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직 소 스승님이 만약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쩔텐가? 그 큰 일을 혼자 어찌 감
감당하려고! 그러니 아사녀! 나하고 살자 이 말여.

아사녀 일 없어요! 직소 오라버니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니 정말 직소 오라
버니가 맞나요?

직 소 아사녀! 다 너를 위해 그런 거야!

아사녀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말을?

아사녀, 울면서 뛰어 들어간다.

직소, 아사녀를 부릅뜬 눈으로 본다.

4장

- 첫 눈길 -

불국사 뜨락

다보탑이 찬연하게 서 있다.

강일 스님이 월이부인과 달단을 안내한다.

월 이 다보탑 축성식 때 보려고 했는데, 다보탑이 수려하다는 소문에 이리 이른
 걸음을 했습니다, 스님!

강 일 잘 오셨습니다. 자 보시지요. 정말 수려하지 않습니까?

달 단 어쩐 이리도 정교할까?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밀가루 반죽으로도 이렇
 게는 못 만들 거예요.

월 이 정말 그렇구나. 참으로 숨씨 좋은 석공이로다.

강 일 명불허전입니다. 과시 천하 명공입니다.

월 이 그렇군요. 그 명공이 아사달이라고 했습니까?

강 일 예, 그렇습니다. 옛날 백제땅 왕궁에서 온 사람입니다. 탑 쌓는 모습을 보
 면 탑과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월 이 참으로 신묘한 재주로다. 돌을 가지고 어찌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강 일 소승들도 이 탑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한답니다.

월 이 과연 그럴 만도 합니다. 헌데 그 분은 어디 있습니까?

강 일 대웅전 뒷마당에 있을 겁니다.

달 단 대웅전 뒷마당에도 탑을 세우나요?

강 일 (웃으며) 그게 아닙니다. 아가씨. 거기서 돌을 자르고 있지요.

달 단 스님, 가서 구경해도 되죠?

달단, 나간다.

월 이 아직 철이 없답니다, 스님!

강 일 부처님 상호처럼 순진하신 것이지요.

월이부인이 다보탑 주변을 돌아본다.

무대 다른 쪽. 대웅전 뒷마당
커다란 원석에 난 구멍에 물을 붓고 있다.

달 단 어쩔, 저리 고운 얼굴이실까? 저 백옥같은 얼굴, 저 나긋한 손끝으로 무딘
돌을 어찌 저리 곱게 깎을 수 있을까?

달단, 인기척을 낸다.
아사달, 일에 열중하느라 알아채지 못한다.
무대 상단에서 백발 노안의 석승, 희미하게 떠오른다.

석 승 물에 적신 버드나무를 가지런히 놓어야 하느니라.

아사달, 정성을 들여 돌 구멍에 버드나무를 넣는다.

달 단 너무 엄숙하고 황홀해. 마치 제사를 올리듯이 하잖아.
석 승 버드나무가 부풀면 그 힘으로 돌은 저절로 깨진다.

아사달, 돌 구멍에 물을 붓는다.

석 승 돌에도 눈이 있고 결이 있고 주름이 있다. 이를 살리지 않는다면 죽은 돌
이니라.

아사달, 돌을 매만지면서 자세하게 살핀다.
흡사 돌을 애무하는 모습이다.
달단, 가까이 간다.

달 단 정말이네? 돌과 말을 나누고 있는 것 같네.

달단이 헛기침을 하지만 아사달, 돌에 몰입해 있다.

달 단 돌이 아니면 관심이 없나 보군요.

아사달 …….

달 단 돌에 물을 왜 붓죠?

아사달 (일을 계속하며) 돌을 자르기 위해섭니다.

달 단 물로 돌을 자른다구요? 찻! 뭐야? 물이 뭐 칼이라도 되나? 알려 주세요!

물로 어찌 돌을 자를 수 있지요?

아사달 물이 여기 쫓은 버드나무를 부풀게 해 그 힘으로 바위를 쪼갬니다.

달 단 어머? 신기해! 올라가서 봐도 되죠?

달단, 서슴없이 돌 위 아사달 가까이로 간다.

달 단 어머? 이건 버드나무잖아?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아사달이 달단을 힐끔 본다.

달단, 부끄러운 듯 고개를 가웃이 숙인다.

달 단 미안해요. 전 달단이라고 합니다. 아사달님이시죠?

아사달 어떻게 제 이름을……?

달 단 다보탑을 만드신 대공이신데 어찌 모르겠어요?

아사달 대공이라 하시니 부끄럽습니다.

달 단 호호호. 부끄럼도 타시네? 어머, 이 손 좀 봐. 이리 고운 손으로 거친 돌을 어찌 그리 잘 다루실까? 정말 명공입니다.

아사달 …….

달단의 몸종, 죽죽이 들어온다.

죽 죽 아가씨! 부인 마님께서 찾으십니다요.

달 단 왜?

죽 죽 집으로 돌아가신답니다요.

달 단 벌써?

죽 죽 벌써라니요? 한식경은 족히 지났는걸요?

달단, 돌 위에서 내려온다.

죽죽이 아사달을 찬찬히 본다.

죽 죽 저 미남자가 다보탑을 만든 돌장이입니까요?

달 단 애, 죽죽아! 돌장이라니? 그 말버릇이 뭐야?

죽 죽 아가씨도! 돌장이가 돌장이지 뭐니까요? 버들고리로 고리 째 만들면 고리장이, 벽돌 만드는 벽돌장이, 지붕 이는 개초장이, 토담 쌓는 토담장이, 돌일을 하면 돌장이! 호호호. 그렇지 않습니까요?

달 단 어머? 애가 그래두!

죽 죽 아가씨?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요?

달 단 넌 다보탑을 보지도 안했단 말이나? 바로 저런 대공과 같은 분이 아니면 가당치도 않아!

죽 죽 그럼 저 분을 뭐라 불러야 합니까요?

달 단 대공이지 뭐야! 앞으론 말조심해!

죽죽, 달단을 뵈히 바라보고 입을 썸룩 내밀며

죽 죽 아가씨가 한 눈에 반해서 췌네를 혼내는 거 다 압니다요. (아사달을 힐끔 보고는) 하긴, 수달처럼 미끈하게 생기긴 했네요. 뭐.

달 단 아니, 죽죽이 너! 수달이라니! 땃가지로 죽죽 맞아볼래! 응?

달단이 죽죽이를 잡으려 하자, 죽죽이 피한다.

강일스님과 월이부인, 들어온다.

월 이 여태 오지 않고 뭇들 하고 있느냐!

달 단 어머니! 죽죽이 저것이 나까지 창피하게 하잖아요, 글썄.

월 이 무슨 소리냐? 죽죽이가 너를 창피하게 했다고?

달 단 아주 순 먹감이라니까!

월 이 내가 말해 보거라!

죽 죽 췌네가 저 분에게 돌장이라고 했다고…….

월 이 (아사달을 본다.) 오, 저 분입니까?

강 일 그렇습니다. 대공님! 내려오셔서 인사 나누시지요.

아사달, 하던 일을 멈추고 돌 아래로 내려온다.

강 일 이찬공 부인이십니다.

아사달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려고 하자, 달단이 가로챈다.

달 단 어머니, 이 분이 아사달이라는 대공이십니다.

죽 죽 (고개를 돌리며) 찿! 이제 갓 얼굴을 안 푹뵈이면서 아는 척은!

아사달 아사달이라고 하옵니다.

월 이 정말 대단한 솜씨를 가졌습니다. 어찌하면 돌을 그리 정교하게 다룰 수
있단 말이요.

아사달 …….

강 일 이 대공께서는 워낙 말수가 없답니다.

월 이 그렇습니까? 방해할 한 것 같으니 저희들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사달, 가볍게 목인사를 한다.

강일스님과 월이부인 나간다.

월 이 생각보다 너벳한 사내군요.

강 일 아주 찬찬한 분이지요.

달 단 대공님! 또 놀러와도 되쵸?

죽 죽 아가씨! 체통을 지키셔야쵸.

달 단 체통? 지금 체통을 지키려고 하는 말이야!

죽 죽 (혼잣말로) 무슨 말인가 원.

달단이 나가자, 죽죽이 따라나간다.

아사달, 먼 하늘을 하염없이 본다.

멀리서 희미하게 목도꾼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5장

- 당신이 보고 싶어요. -

왕궁 채석장

직소가 깃발을 들고 켄 돌을 나르는 석공들을 지휘한다.

직소가 선소리를 먹이면 목도꾼들이 뒤통소리를 받으며 일사분란하게 돌을 운반한다.

직 소 여보시오.
 석공들 후!
 직 소 석공님들
 석공들 후!
 직 소 부귀영화
 석공들 후!
 직 소 금생 이후
 석공들 후!
 직 소 내 생에는
 석공들 후!
 직 소 금생 공덕
 석공들 후!
 직 소 인연하여
 석공들 후!
 직 소 성불성인
 석공들 후!
 직 소 되고지고.
 석공들 후!

목도꾼들 돌을 내려놓는다.

만 성 암만해도 스승님 병세가 수상쩍구먼.
 석공 1 아사달이 서라벌에 가고 나서 부쩍 그러시는 것 같네.
 만 성 저러다 돌아가시면 어찌나?
 석공 1 쉬이 가실 분이신가?
 만 성 모르는 소리네. 단단한 돌에 췌기 박아보고도 그런가?
 석공 1 무슨 소린가?
 만 성 스승님에게 췌기가 누구겠어? 서라벌 간 아사달이 아닌가!
 직 소 그게 스승님 병환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만 성 에, 참내! 스승님께서 얼마나 아사달을 귀애하셨는가?
 석공 1 아사달이 없으니 스승님 병환은 췌기 박은 돌처럼 위태하다 이건가?
 만 성 이제야 말귀를 알아들어?
 석공 1 씨잘디기 없는 소리 치우게! 스승님은 아직도 강건하시네.

만 성 그거야 그렇지만서두. 요즘 들어 기력이 부쩍 쇠약해지시니…….

석공 1 그나저나 아사녀 아씨가 탈이구먼.

만 성 어찌겠는가? 탑을 두 개씩이나 올려야 한다 하니 기다릴 수밖에.

석공 1 그게 아니라…….

만 성 뭔가? 말을 왜 하다 말아?

석공 1 암만해도 양식이 동난 듯 싶네.

만 성 뭐? 양식이 떨어져?

석공 1 술밭에서 소나무 껍질 벗기는 걸 여러 번 봤다니까.

만 성 그런 일이 있으면 단박에 말을 했어야지!

석공 1 자네도 애옥살림이긴 마찬가지인데 뭘 어찌려구?

만 성 봉화사에 가 봐야겠구먼.

석공 1 뜬금없이 거긴 왜?

만 성 스승님을 굶게 할 수는 없잖은가! 자, 어서 서둘러 내려가세.

직소는 먼 하늘만 무연히 바라보고 한 마디를 하지 않는다.

만 성 형님! 뭘 생각을 그리 하시오? 고만 내려가십시오.

목도꾼들, 끈을 짊어지고 ‘허여차! 허여차!’하면서 나간다.

무대 후면에 둥그런 달

정안수 앞에서 비손하는 아사녀

아사녀 비읍니다. 비읍니다. 달님 전에 비읍니다. 서라벌 계신 우리 낭군 무사무
탈하게 하옵시고, 손길 곱게 곱게 이끄시어 부처님 가피 받게 해주소서.

수차례 절을 올린 아사녀, 다시 달 아래 무릎 꿇는다.

아사녀 아사달! 당신이 보고 싶어요. 당신은 나의 이 소리를 듣나요? 나의 이 애
타는 마음을 보고 있나요? 세상의 소리를 보는 관세음보살님처럼 당신은
이 아사녀의 소리를 볼 수 있나요?

무대 밖에서 석승의 힘없는 소리

석 승 아사녀아!

아사녀, 별떡 일어나 바빠 나간다.

6장

- 달빛 금실로 사랑을 깎는 마음 -

무대에 등불이 화려하게 켜있다.

죽죽이가 ‘등타령’을 흥얼거리면서 무대에 들어온다.

죽 죽 열중덜중 호랑등은 만첩청산 어따 두고
 물색 좋은 초록등은 황애장사 어따 두고
 저리 높이 걸렸느냐.
 팔팔 뛰는 송어등은 남해바다 어따 두고
 넓적하다 붕어등은 뚝배기를 어따 두고
 저리 공중 걸렸느냐.
 아, 등불 같은 사내 어디 없나?

강일과 원주 스님 그리고 의표를 정갈하게 갖춘 아사달이 들어온다.

죽 죽 안녕하세요? 스님?
강 일 부인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죽 죽 (수다스럽게) 제가 길을 여느라고 먼저 왔습시다요.
강 일 허허. 그리했는가. 애쓰셨구먼.
죽 죽 (고개를 끄덕하며) 돌장이 대공님!
원 주 돌장이 대공? 호호호. 꽃이 있으면 당연히 뿌리도 있지요, 보살님!
죽 죽 예?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
원 주 대공이면 되었지 굳이 돌장이까지야.
아사달 괜찮습니다, 스님.
원 주 말보시도 공덕입니다. 또한 이 큰 일을 하셨으니 당연히 대공이시기도 하
 구요. 안 그러습니까? 스님?
강 일 이르다마다.
아사달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 일 오늘은 다보탑 축성날이니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뵈옵시다.
원 주 저 등처럼 마음의 등불 하나씩 밝히면 그게 곧 부처님께서 나투시는 겹니다. 시주님도 마음의 등불 하나 켜시지요.
죽 죽 원네야 이 등불 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강 일 자, 가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대공!

강일과 원주스님 그리고 아사달이 단상에 마련된 자리에 앉는다.
월이부인과 달금이 들어온다.

강 일 어서 오십시오, 부인!
월 이 조금 늦었습니다, 스님!
강 일 아닙니다. 어서 앉으시지요.

월이부인이 강일스님 곁에 앉고 달금이가 아사달 곁으로 가서 앉는다.

달 금 (아사달에게) 등불이 정말 아름답지요?
아사달 그렇군요.
달 금 아사달님께서 입고 계신 옷도 참 곱네요. 고향에서 가져오신 건가요?
아사달 원주스님께서 지어주신 겁니다.
달 금 원주스님이요?

달금의 소리에 원주와 강일스님이 힐끔 바라본다.
다보탑 앞에서 스님들이 바라춤을 추기 시작한다.
바라춤이 끝나자 모든 이들이 함장하며 다보탑 주위를 돈다.
탑돌이가 진행되면서 무대 차차 어두워지자
두 스님과 월이부인은 담소를 나누며 나간다.
달이 돋고, 무대는 검하얗게 바뀐다.
아사달이 다보탑 앞에 정좌한 채 묵언의 발원을 하고 있다.
달빛 하얀 다보탑 뜨락 한쪽에서 달금이와 죽죽이가 이를 본다.

죽 죽 아가씨! 이제 돌아가셔야지요!
달 금 언제까지 저러고 계실까? 무슨 발원이 저리도 깊은 걸까?
죽 죽 원네가 가서 물어보고 올까요?
달 금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서 묻고 싶지만. 아사달님

마음을 휘방하는 짓이라 그럴 수 없어.

죽 죽 아가씨! 아가씨 마음대로 허세요. 안 그러면 속병 앓을 거니까!

달 금 이것아! 좀 조용히 못해!

달금이가 아사달을 지켜보는데,

죽죽이가 살금살금 등으로 가서 등불 하나를 떨어뜨린다.

떨어지는 소리에 아사달이 바라본다.

달 금 이그! 저 죽죽이 정말!

죽 죽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됐습니까요, 아가씨!

달 금 내내 말하지 않았어? 휘방하지 말라구!

죽 죽 예, 참 아가씨도! 새가 보고 싶으면 나무 심으랬다고. 쉼네가 등불을 떨어
트리니까 아사달님이 이쪽을 보지 않습니까요.

달금, 죽죽이의 말을 무시하고 아사달에게 다가간다.

달 금 미안해요. 원체 서털구털한 아이라…….

아사달 괜찮습니다.

달 금 무슨 발원이 그리 깊사옵니까?

아사달 …….

달 금 고향 떠난 지가 꽤나 오래 되었지요? 고향에는 누가 계시나요?

아사달 스승님과 아내가 있습니다.

달 금 많이 보고 싶겠군요.

아사달 …….

달 금 돌을 만지면 돌을 닳는가 보죠?

아사달 네?

달 금 너무 말이 없으니 이 달금이 입이 방정맞아지잖아요.

아사달 탑을 만드는데 가장 소중한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달 금 그거야 망치 아닌가요?

아사달, 고개를 흔든다.

달 금 아니라고요?

아사달 마음입니다.

달 금 치! 거짓말! 마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아사달 생각이 물건을 만드는 원천입니다. 물건은 애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이 오래 묵고 묵으면 곧 물건이 되는 것이니까요.

달 금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이 탑도 원래 없었지만 아사달님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나는 왜 그러지?

아사달, 달금을 본다.

달 금 제가 아사달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세요? 헌데 아사달님은 저를 황새 여울목 보듯 하잖아요.

아사달, 일어난다.

달 금 왜 일어나세요? 제 말에 답을 해주세요. 네? 아사달님!

아사달 밤이 깊었습니다. 그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아사달, 가볍게 목례를 하고 들어간다.

죽죽이 히죽거리면서 달금에게 다가간다.

죽 죽 새가 날아오기는 나무가 아직 작은가 봅니다요. 아가씨!

달 금 너, 정말!

죽 죽 늦으면 흰네가 경을 맞으니 어서 돌아가십시오요, 아가씨!

달금, 금실같은 달빛이 내리는 다보탑을 본다.

7장

- 석승의 죽음 -

병색이 완연한 석승, 지팡이에 의지한 채 먼 산 바라기를 하고 있다.

아사녀, 들어온다.

아사녀 아버지님! 날이 추워요. 그만 들어가세요.

석 승 이 겨울만 지나면…….

아사녀 새봄이 와요, 아버님! 꽃도 피고, 새도 울고, 따뜻한 아지랑이도 오르고요.

석 승 이 겨울만 지나면……. 아사달이 돌아오겠지. 아사달이!

아사녀 (울먹한다.) 네, 아버님.

석 승 (기침) 내가 아사달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아사녀 아버님! 돌처럼 단단한 심지는 다 어디 두고 그리 약한 소리를 하세요?

아버님!

석 승 세월에 맞설 자가 어디 있더냐. 이 아비도 이제 서벽돌처럼 버글버글하구나. 어느 바람에 부서질지……. (기침)

아사녀 운다.

석 승 아사녀아! 우지 마라. 아사달이 있지 않느냐.

아사녀 아버님!

만성이 쌀짐을 지고 들어온다.

만 성 스승님!

석 승 왔는가?

만 성 추운데 왜 나오셨습니까?

석 승 하늘이 보고 싶네. 저 하늘이…….

만 성 (하늘을 본다.) 운모처럼 하늘이 뿌연데, 어찌 하늘을 보시겠다고 하십니까?

곧 눈이 쏟아질 것 같으니 들어가시지요, 스승님!

석 승 냅두어! 그래도 하늘이 보고 싶네.

만 성 또 아사달 생각을 하십니까?

석승, 아무런 대답이 없다.

만 성 아씨! 이 쌀을 정지간에다 부리면 됩니까?

아사녀 (눈물을 흘리며) 지난 번 주신 쌀이 아직 남았는데…….

만 성 아끼지 말아요. 속이 든든해야 스승님 기력도 좋아지고 시한 추위도 견딜 수 있으니까요.

아사녀 고마워요, 오라버니!

석 승 용화사 석탑은 어찌 되어가는가?

만 성 돌은 다 잘랐고, 지금은 다듬질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석 승 그렇구먼. 사방 한치에 큰 정으로 열다섯 번, 작은 정으로 일흔 번을 두드려야 돌살이 살아나.

만 성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하고 있습니다요.

석 승 재주가 부지런한 것만 못하니, 쥐가 소금을 나르듯 조금씩 조금씩 다듬질을 해야 할 것이야! (기침)

만 성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석 승 …… (기침)

만 성 찬 바람에 기침이 심해지십니다, 아씨! 안으로 모시세요.

석 승 아니야! 좀더 놔둬!

아사녀 아버님! 곧 눈이 올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석 승 괜찮대도! (기침) 직소에게도 잘 해주거라. (기침)

만 성 네, 스승님! 기침이 심하십니다.

석상처럼 움직임이 없이 앉아있는 석승.

만 성 (아사녀에게) 아사달에게 기별은 있습니까?

아사녀 아무런 기별도 없어요.

만 성 탑 올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태가 넘어가도록 기별이 없다니.

아사녀 일도일념으로 탑을 쌓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오라버니.

만 성 뭘 일이 있겠습니까요? 손끝 야무져서 잘 하고 돌아올 겁니다. 지금 정도는 탑 두 개가 얼추 다 올랐을 것이고만.

아사녀 아버님이 봄을 기다리세요.

만 성 아사달을 기다리시는 것이겠지요. 오죽 귀애하셨습니까?

아사녀 아까부터 아버님이 꿈쩍도 앉으시니 주무시나?

아사녀, 석승 가까이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란다.

아사녀 아버님!

만성, 석승에게 간다.

아사녀, 울면서 석승을 어루만진다.

만성, 그 자리에 꿇어앉아 말없이 운다.

하얀 눈발이 시나브로 내리기 시작한다.

구부정하게 등이 굽은 채로 죽은 석승,

하얀 눈발이 마치 돌가루같다.

숨진 석승의 모습이 돌가루를 맞으며 돌을 다듬고 있는 듯하다.

8장

- 아사달이라는 탑을 세우겠어요. -

눈발이 히끗거리는 불국사 대웅전 뜨락

몇 개의 햇불에 의지한 채 아사달이 석가탑을 쌓고 있다.

정으로 돌을 다듬다가 문득 고개 들어 무대 상단을 본다.

무대 상단에 석승이 나타난다.

아사달 스승님?

석승, 졸연히 사라진다.

아사달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

아사달 스승님!

무대 상단에 다시 나타난 석승, 가뭇없이 사라진다.

아사달 스승님! 어디로 가십니까?

아사달,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 텅빈 무대 상단

아사달, 다시 정질을 시작한다. 무심결에 망치로 자신의 손등을 내리친다.

손목을 부여잡는다.

원주스님이 재빨리 들어와 형겅으로 감아준다.

달금, 들어오다가 이를 보고는 몸을 감춘다.

원 주 피가 많이 흐릅니다. 아무래도 선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사달 아닙니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니니 괜찮습니다.

원 주 이 추운 밤에 일은 무리십니다. 며칠째 밤을 샅습니다.

아사달 …….

원 주 (옷을 준다.) 이 옷을 입으시지요. 누비옷입니다. 어한이 될 것입니다, 대공
님.

아사달 고맙습니다, 스님!

숨어서 보던 달금이가 자신이 가져온 옷을 본다.

죽죽이가 아무 생각없이 들어와 아사달에게 간다.

죽 죽 우리 달금이 아가씨께서 이 옷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시오?

아사달 예?

죽 죽 몇날 며칠을 날밤을 새웠다우. 그 덕에 원네도 잠 한 숨 못 자고. 헌데 우리 달금이 아가씨는 어디 갔누? (두리번거린다.)

원 주 (웃으며) 달금이 아가씨도 대공님 옷을 지었는가 봅니다.

죽 죽 예, 스님! 이게 바로 그 옷……? 예?

원 주 달금 아가씨는 여기 오시질 않았습시다.

죽 죽 예? 그럼, 이 옷은? 이 옷이 걸어왔다 이 말입니까요, 스님?

아사달 이 누비옷은 여기 원주스님께서 지어오셨습시다.

죽 죽 오매? 우리 달금이 아가씨네요? 달금이 아가씨! 달금이 아가씨!

우리 아가씨가 분명 불국사 산문에 같이 들어왔는데, 어디 가셨지?

원 주 (빙그시 웃으며) 그럼, 소승은 들어가보겠습니다.

아사달 예, 스님!

원주, 들어간다.

이와 동시에 달금이가 대뜸 나타난다.

죽 죽 아가씨! 어데 갔다 이제 오시오?

달 금 가긴 어딜 가!

죽 죽 허면, 이 어둠이 아가씨의 발을 잡더란 말입니까?

달 금 내 발을 잡은 건 어둠이 아니라 스님이셨다.

죽 죽 스님요? 스님은 아까 전에 가셨는데.

달 금 아사달님! 원주스님과 껍 가까우시던데요?

아사달 예?

달 금 살갑게 손도 잡으시고…….

아사달 망치질을 잘못하는 바람에 손에 피가 나서…….

달 금 이 누비옷도 지어주시고…….

아사달 아, 예.

달 금 소녀가 밤새워 지은 이 옷은 무상한 것이 되었습니다. (운다.)

죽 죽 아가씨! (아사달에게 화를 낸다.) 대공인지 대공인지는 몰라도 너무 하시잖아요! 우리 아가씨를 올리다니!

아사달 …….

죽 죽 그렇게 마님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 헌헌장부 마다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 앞에서 눈물바람입니까요?

달 단 (울음을 그치고) 죽죽이 너! 당장 저리 가지 못해!

죽 죽 (투덜대면서 나간다.) 찻! 나만 가지고 닭달이야!

달 금 아사달님, 이건 제가 지은 옷이에요. 아사달님을 그리면서 한땀한땀 지은 옷이랍니다. 받아주세요.

아사달, 받지 않는다.

달 금 어서 받으세요!

아사달, 마지 못해 받고 달금에게 가볍게 목례하고는 석탑 위로 올라가 망치질을 한다.

달 금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겠죠? 아사달님은 석가탑을 올리세요. 소녀도 탑을 공들여 올리겠어요. 그 탑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사달이에요.

달금, 나간다.

망치질을 멈추고 달금을 바라보는 아사달

9장

- 꼬달리는 번뇌 -

무대 상단, 아사녀 떠오른다.

아사녀 아사달! 당신에 대한 나의 그리움은 결코 가볍지 않아. 헌데 왜 당신은 꿈속에서도 오질 않지?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이제 겨울도 가고 있으니, 새봄처럼 당신도 오겠지. 빨리 돌아와줘, 아사달! 이 언 가슴과 쌓인 그리움을 봄바람으로 날려줘. 아사달! 먼 그곳일지라도 이 마음 가깝게 가지고 있겠지?

중앙무대 밝아지면 미완의 석가탑 앞에서 아사달, 강일에게 머리를 짊이고 있다.

강 일 사람의 마음이란 바람과 같아서 무시무때로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지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혼연히 세월을 건너갈 수 없는 법. 사람들
이 꼬달리는 건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사달, 묵연히 눈을 감고 있다.

강 일 산중의 스님이 달빛을 탐내 물 길고 달 길어 병속에 담았지요. 그리고는
문득 돌아와 병을 비우니 얻은 달마저도 또한 없어졌답니다.
모든 게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이 일어나 분노도 되고, 음심도 되고, 욕심
도 되어 나를 속이지만 모두가 어리석음이요, 헛되고 헛된 허공의 꽃일
따름입니다.

강일이 아사달의 머리를 짊는 동안 무대 상단이 밝아지고 중앙 무대 어두워진다.
무대 상단, 달금이 떠오른다.

달 금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겠죠? 아사달님은 석가탑을 올리세요. 소녀도 탑을
공들여 올리겠어요. 그 탑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사달이에요.

무대 상단 다른 쪽에서 원주스님이 누비옷을 들고 있다.

원 주 누비옷입니다, 대공님! 어한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무대 상단, 아사녀 나타난다.

아사녀 너 나 되고, 나 너 되고, 천년 만년 돌처럼 썩지 않는 사랑……. 아사달!
아사달 아사녀!

무대 중앙 밝아지면, 아사달이 강일에게 합장배례한다.

강 일 번뇌가 들쭉셔도 마음이 고요하면 바람 자취도 남지 않을 겁니다.

강일, 나간다.

아사달, 미완의 석가탑 앞에서 정좌한다.

무대 상단, 석승 나타난다.

석 승 아사달, 이놈! 마궁(魔宮) 속에 들어앉아 흔들리다니! 바른 생각에는 바늘 끝, 칼날도 들어오지 못함을 어찌 모르느냐!

멀리서 스님들의 독경소리가 들려온다.

10장

- 어머니, 사랑이 제 길입니다. -

달금의 집

월 이 대관절 무엇이 싫어 한사코 반대를 하는 거냐!

달 금 싫어서가 아닙니다, 어머니.

월 이 허면, 왜 마다하는 게야.

달 금 소녀는 이미 다른 사내를 품고 있습니다. 어머니.

월 이 불국사 석공이냐!

달 금 네.

월 이 긴가민가했는데, 그게 사실일 줄은 몰랐다! 석공이라니!

달 금 어머니! 그분은 석공이시기 전에 참한 사내입니다.

월 이 넌 이 나라 이찬의 외동딸이다. 아무리 사람이 찬찬해도 석공은 석공! 너 하고는 격이 다르다.

달 금 어머니!

월 이 너와의 인연이 아닌 걸 정녕 모르느냐!

달 금 소녀는 그분과의 만남의 인연을 아끼겠습니다.

월 이 만남이 인연이라면 헤어지는 것도 인연이다!

달 금 어머니, 소녀의 마음밭에 이미 아사달님이 자라고 있습니다.

월 이 (깜짝 놀라) 아니, 달금아? 너!

달 금 소녀의 마음 속에 다른 사내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허니,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네?

월 이 험험한 낭도가 그렇게도 싫으냐! 네 아버지도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철딱서니 없는 자식이로서니 어찌 네 마음 가는 대로만 작정을 한단 말이냐!

달 금 어머니! 아무리 드넓은 대천세계면 무엇해요? 아사달님 외엔 다른 사내가 보이지를 앓는다구요.

월 이 참, 고질이구나. 이를 어찌해야 종단 말이나.

죽죽이 들어온다.

죽 죽 마님! 대감마님께서 들어오십니다요.

월 이 네 아버지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라.

달 금 어머니도 저의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월이, 한숨을 내쉬며 나간다.

11장

- 갈까 보다, 임 찾아 갈까 보다. -

아사녀의 집

만 성 아씨! 거기가 어디라고 가시려고 합니까?

아사녀 봄이 다 가도록 아사달이 오지를 앓으니 제가 가봐야겠어요.

만 성 일이 더더지는 모양이니 좀 참고 기다리면 돌아오겠지요.

아사녀 아닙니다. 아사달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앓고서야 이렇게 늦어질 리 없습니
다.

만 성 아씨! 무슨 일이 있겠어요? 탑은 공력으로 쌓는 것이니 오래 걸려서 그럴
겁니다.

아사녀 아무리 공력이라지만……. 철철마다 철새들도 돌아오는데, 우리 아사달은
어이 하여 떠난 길을 되돌아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만 성 돌아가신 스승님 상정도 돌봐야 하지 않습니까?

아사녀 만성 오라버니가 계시잖아요. 아사달에게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하루
라도 빨리 나서고 싶을 따름입니다.

만 성 정히 그러하다면, 직소 형님이나 만나보고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형님
이 서운하게 여기실 겁니다. 형님도 용화사 석탑 올리느라 언제나 나오실
지 원.

아사녀 …….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만 성 아이고,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도 없고, 원! 사타구니에 밤
송이 낀 것 마냥 영 결적지근하네.

아사녀 지아비 찾아 가는 길입니다, 오라버니.

만 성 아, 그 길이 옆드리면 코 닿는 데도 아니고, 그 먼 길을…….

아사녀 가다가 잘 데가 없으면 말뚝잠 자면 되고요, 먹을 거리 떨어지면 주막집
에서 중노미 하면 되요. 오라버니, 다녀오겠습니다.

만 성 아무튼지 간에, 몸 성히 잘 다녀오우.

만성, 자신이 차고 있는 표주박을 아사녀의 피나리봇짐에 묶어준다.

아사녀, 나간다.

만성, 아사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12장

-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가두고 -

비가 내리는 저녁

다보탑 앞에서 정좌한 채 움직임이 없는 아사달

무대 상단에서는 원주스님이 눈을 감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강일스님이 원주에게 죽비를 내리친다.

강 일 불자인 네가 삼천 공덕으로도 어려운 일을 대공이 석탑 공덕으로 하고 있
다. 현대 대공에게 음심을 갖다니! 마음의 때를 지우고 또 지워라!

강일, 죽비로 원주의 어깨를 내리친다.

강 일 미망의 거미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육신, 헛되고 헛되도다!

강일, 죽비로 원주의 어깨를 또 다시 내리친다.

강 일 참회의 게를 백번이고 천번이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강일, 무대 상단에서 내려온다.

강 일 새 날아간 허공에 자취가 있더냐? 애초에 나는 없는 것이다. 나를 지우고
지워 엄엄한 수행자가 되어야 하거늘.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다니! (무대
상단을 향해) 무엇 하느냐! 참회게송을 외지 않고서!

무대 상단의 원주스님이 참회게송을 읽는다.

원 주 아득히 먼 그 예부터 제가 지은 모든 악업
탐애하고 화를 내고 어리석은 때문이오며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어왔기 때문이오며
모든 것을 남김없이 저희 이제 참회합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가 무대에 가득히 차오른다.
게송이 차츰 빗소리를 댈는다.
강일스님이 아사달에게 다가간다.

강 일 대공! 하루 낮밤 동안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시다.
아사달 스님! 제 원력이 부족해 아직도 미망의 그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강 일 스스로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리하면 열음지옥 불지옥에서도 마음이 한가
해질 것입니다.
아사달 스승님께서 탑은 마음으로 올린다 했습니다. 헌데 번뇌가 마음에서 들끓
고 있으니 돌을 대하기가 무섭습시다.
강 일 대공께서도 마궁에 드셨군요. 아집을 버리고 법집에 사로잡히셔야 합니다.
집착은 무섭고도 무서운 어리석음이오나, 법집에 나를 옮겨놓는다면 아집
을 버릴 수 있을 겁니다. 부디 견성하십시오.

강일, 함장하고 나간다.
아사달, 다시 석가탑 앞에 정좌한다.
빗소리도 게송도 그치고, 밤의 적막이 무겁다.

무대 상단에 석승, 나타난다.

석 승 못난 놈! 당장 끊지 못할까!

정좌하고 있던 아사달, 화들짝하게 놀라 일어난다.

아사달 스승님!

석 승 못난 놈! 오로지 진심진력으로 피워내야 할 꽃이거늘! 수세미 속 같은 네
마음으로 무엇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더냐!

아사달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마음의 번뇌를 끊겠습니다.

석 승 허면, 단박에 하거라! 무얼 망설이느냐!

아사달 다보탑을 아사녀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스승님! 지천에 핀 봄꽃으로 꽃지
집하는 아사녀의 살손. 그 마음으로 다보탑을 올렸습니다. 하오나 석가탑
은…….

석 승 쫓쫓, 너는 너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구나.

범종소리 은은하게 울려온다.

석승, 사라진다.

아사달 스승님? 스승님?

달금, 보파리를 들고 들어온다.

달 금 아사달님!

아사달 아니, 이 새벽에 어찌 오셨습니까?

달 금 집을 나왔어요.

아사달 집을 나오다니요?

달 금 아사달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아사달 달금 아가씨!

달 금 부모를 버리고, 고향을 버렸습니다. 오직 제 마음만을 위해서요. 이런 저
의 마음을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사달님!

아사달 그럴 수 없소!

달 금 아사달님!

아사달 이 탑이 완공되는 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오!

달 금 저도 따르겠습니다.

아사달 아내가 있소!

달 금 알고 있습니다.

아사달 알고 있다고요?

달 금 오직 소녀는 아사달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사달, 법당 쪽을 보면서 큰소리로 부른다.

아사달 스님! 강일스님!

강일스님 나온다.

강 일 무슨 일입니까?

아사달 이 탑이 다 올라갈 때까지 스님 외에는 일체 산문출입을 막아주십시오.

달 금 아사달님?

아사달 탑은 단순히 돌을 쌓은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법신을 모시는 일입니다. 하
오니, 스님! 저의 소청을 들어주십시오.

강 일 아가씨! 대공의 말씀을 들으셨지요? 그리 하시지요.

달 금 정히 그러하시다면 그리하겠어요. 하지만 이 탑이 다 올라가면 그때는 저
를 거부하지 마세요.

강 일 그때는 큰 시주님이랑 함께 당연히 오셔야지요.

달 금 스님, 그게 아닙니다.

강 일 아니라니요?

달 금 제가 제일 먼저 이 탑을 봐야 합니다.

강 일 무슨 말씀인지 원…….

달 금 현대, 이 탑이 완공되는 걸 절문 밖에 있는 제가 어찌 알죠?

강 일 석가탑이 완성되면 해 그림자가 비쳐 절문 밖에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달
금 알겠습니다, 스님! 그럼 소녀는 절문 밖에서 석가탑의 그림자가 비칠 때까
지 기다리겠습니다.

강 일 행자스님!

행자스님이 나온다.

행 자 스님! 부르셨습니까?

강 일 행자스님이 산문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행 자 산문을 지키라구요? 설마 범종소리, 목어소리를 가두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지요?

강 일 이 석가탑이 완공될 때까지는 사갓집 보살님들은 들어오시지 못하게 하란 말입니다.

행 자 아, 예, 스님!

행자스님이 달금을 힐끗 본다.

달 금 아사달님! 소녀 또한 석가탑이 하루라도 빨리 완공되기를 발원하고 또 발원하겠습니다.

달금, 행자스님과 함께 나간다.

강 일 나무관세음보살.

13장

- 일심원력, 화엄의 꽃 -

무대 밝아지면, 정면을 제외한 삼면이 하얀 천으로 둘러진 석가탑.

아사달, 석가탑을 향해 합장배례한다.

아사달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나무관세음보살. 이 탑의 그림자는 밖으로 나갈 수 없어야 한다. 나의 마음 역시 이 안에서 나가지 말아야 한다. 오직 범신을 모시는 일념으로 석가탑을 올려야 한다. 그때까지 아사녀도 잊어야 한다.

아사달, 돌을 정성스럽게 다듬질한다.

아사달 비록 차디찬 돌이지만 일심원력으로 한다면 이 돌에서 꽃이 피리. 나의 혼꽃이 피리.

무대 상단, 석승이 나타난다.

석 승 열여섯 도드락 다듬질을 마치면 고운 도드락으로 돌살을 다듬어라.

아사달의 정다듬 소리가 미명의 세계에 퍼져나간다.

석 승 잔다듬질이로구나. 날망치를 똑바로 세우고 한손한손 두드리면서 혼을 넣
어야 하느니라.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오로지 일심원력으로 공을 들
여 너의 꽃을 피우거라!

아사달, 이마의 땀을 훔친다.

원주스님 들어온다.

원 주 (하얀 천 밖에서) 대공님! 아침 공양 하십시오.

아사달, 정다듬질을 하느라 듣지 못한다.

원 주 대공…….

아사달 이 대천세계, 이 망치와 이 정으로 화엄세계를 이루리라! 화엄의 꽃! 화엄
의 꽃! 나의 혼백을 태워 화엄의 꽃을 이루리라! 나는 적멸이로다! 적멸!
적멸로 화엄의 꽃은 피울지니. 화엄의 꽃! 화엄의 꽃!

신들린 듯, 아사달의 정다듬질은 능란하다.

원주스님이 아사달의 소리와 정다듬질을 듣고는 합장배례하고 나간다.

14장

- 달금이 아가씨 -

죽죽이 들어온다.

행자스님이 의자에 앉아 불경을 읽다가 무심코 들어가려는 죽죽이를 가로막는다.

죽 죽 스님? 왜 그러십니까요?

행 자 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 죽 아니, 왜요? 내동 들락날락 했는데!

행 자 아무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 죽 이찬공택 마님의 심부름인데도요?

행 자 아무튼 아니됩니다. 시주님, 헛걸음하셨다 여기서고 돌아가 주시지요.

죽 죽 (혼잣말로) 헛참, 하루아침 사이에 무슨 일이란 말여! 우리 달금이 아가씨가 절 안에 있는데, (소리를 지른다.) 달금이 아가씨가요! 시방 마님께서 아가씨가 없어졌다고 난리 난리 상난린데……. 달금이 아가씨 좀 보게 해주세요, 스님!

행 자 그 젊은 시주님이 그 분인지는 몰라도…….

죽 죽 맞아요. 젊고 고운 아가씨가 바로 우리 달금이 아가씨가 맞아요!

행 자 그 분은 불국사에서 나왔습니다.

죽 죽 나가다니? 그럼 집으로 갔나? 오면서 마주치지 않았는데. 어디로 갔대요?

행 자 소승이야 그걸 알 리가 있겠습니까?

죽 죽 헤, 답답. 어디로 갔나 글썄! 마님께 뭐라고 아뢰지? 분명 불국사엔 왔다. 근데 시방 없다. 왔다가 갔다? 글썄, 어디로? 달금이 아가씨! 달금이 아가씨!

죽죽, 달금이를 부르며 나간다.

행자스님도 주변을 둘러보더니 나간다.

행색이 남루한 모습으로 아사녀 들어온다.

아사녀 서라벌길이 참으로 멀고도 멀구나. 이 길을 우리 아사달이 걸어왔단 말인가. 이젠 불국사까지만 가면, 그리운 아사달을 만날 수 있을게야.

달금, 보파리를 든 채 들어온다.

아사녀 말씀 좀 묻겠습니다.

달 금 네?

아사녀 불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달 금 저 산모퉁 지나면 불국사예요.

아사녀 고맙습니다.

달금, 아사녀를 찬찬히 본다.

죽죽이 달금이를 부르며 나온다.

죽 죽 달금이 아가씨! 여기 계신 줄도 모르고 사방팔방으로 찾았지 뭐니까요?

달 금 네가 웬 일이나?

죽 죽 마님께서 찾고 난리십니다요. 어서 가시와요! (아사녀를 본다.) 헌테 저 거지는 누굽니까요?

달 금 글썸다. 불국사를 찾는구나.

죽 죽 불국사요? 절밥 얻어먹으려고 그런가 본데, 어림도 없지.

달 금 애, 죽죽아!

죽 죽 아무튼, 어서 가시와요.

달 금 아니야! 갈 수 없어!

죽 죽 아니? 아가씨! 왜 갈 수 없다는 겁니까요?

달 금 넌 몰라! 그분을 여윌 수 없는 내 마음을 모른다구!

아사녀, 나가다 말고 달금의 소리를 듣는다.

죽 죽 예구, 원네더러 어찌라구 그러십니까요? 샘에 가서 물 길고, 뒤주에서 쌀 찾는 거 아닙니까요?

달 금 무슨 말야?

죽 죽 마님에게 고집을 피워서라도 우겨야지 원, 무작정 보따리 걸음으로 나오면 어떡하나 이 말입지요.

달 금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죽죽아! 어머니에게 이 달금이는 아주 멀리 가버렸다고 말해주렴. 응?

죽 죽 예잇! 원네도 모르겠습니다요! 정말 안 가실 작정이요?

달 금 못 가! 아니 갈 수가 없어! 아사달님을 두고 갈 수가 없다구!

죽 죽 아! 그러지 말고 빨리 가잔 말이요, 아가씨!

달금, 나간다.

죽죽이가 그 뒤를 따른다.

달 금 너는 집으로 돌아가.

죽 죽 나도 아가씨 따라 갈라우. 아가씨 가는데 나도 갈라요.

달 금 어딜 간다구!

죽 죽 그거야 아가씨 가는 데죠, 뭐!

달 금 안된다고 했지!

죽 죽 갈거요!

달 금 안돼!

죽 죽 가요!

달 금 나도 모르겠다.

달금의 뒤를 밟는 죽죽이, 달금이 그대로 나가버린다.

15장

- 왜 당신의 마음은 담장에 둘러쳐져 있나요? -

아사녀가 남루한 차림으로 들어온다.

행자스님 나온다.

아사녀 스님! 여기가 불국사가 맞는지요.

행 자 그렇습니다.

아사녀 그렇다면 석탑을 쌓는 아사달이라는 분을 아시는지요?

행 자 이름은 모르으나 석탑을 쌓는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아사녀 고맙습니다. 스님! 이제야 만나볼 수 있겠네.

행 자 누구십니까?

아사녀 그 분이 저의 남편이십니다.

행 자 그럼? 새재 넘어 백제땅에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까?

아사녀 예, 산 첩첩 고개 막히면 고개 넘고, 물 겹겹 물 막히면 물길 열어 죽을
고비 수차 넘겨 예까지 왔습니다, 스님!

행 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자비심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사녀 예, 스님!

행 자 헌데, 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딱하게 되었습니다.

아사녀 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요? 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까? 스님?

행 자 산문으로 일체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사녀 스님! 천리길을 밟고 왔습니다. 제 남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행 자 탑공덕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거진 다 되어가는 듯하니, 그분의
일심원력을 호트리지 말아주십시오, 보살님.

아사녀 아사달! 왜 당신의 마음은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나요? 스님, 남편을 만나
볼 방도가 없을까요? 네?

행 자 여기서 오리썸 떨어진 곳에 연못이 하나 있다 들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
시면 탑이 다 되었을 때 그림자가 비칠 것입니다. 그리하면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사녀 네! 스님! 그리하겠습니다. 일구월심, 남편 보기를 꿈꿨는데 그리하겠습니
다.

아사녀, 스님에게 합장배례하고 나간다.

16장

- 불멸의 법신, 혼꽃이 되다. -

아사달이 석가탑을 쌓고 있다.

정으로 돌 표면을 다듬기를 수차례. 돌가루가 날린다.

아사달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하얀 빛이 품어져 나온다.

원 주 스님! 저 돌가루 속에서도 대공은 만면에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강 일 말토도회(抹土塗灰)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탑과 대공이 저리 혼연
할 수 있다니! 예토세상에서 불국토를 이루셨구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
살.

강일과 원주, 염불을 외면서 탑돌이를 한다.

마침내 다듬어진 돌을 차곡차곡 정성들여 올리기 시작하는 아사달.

무대 상단, 석승 나타난다.

석 승 모서리 기둥에 받침 기둥 세우고, 몸돌과 지붕돌을 얹어 대천세계를 이루
어라.

석승의 말이 아사달의 행동이 되고, 아사달의 행동이 곧 석승의 말로 이어진다.

석 승 찰주에 수연과 용차를 올려라. 안개 가득한 세상, 꽃고리에 담아 불국토
의 빛을 심어라!

아사달, 찰주에 수연과 용차를 올린다.

석 승 천개의 눈이 있어도 망울이 없고서야 볼 수 있겠느냐! 보주로 망울을 삼아
아 탐을 탐으로 하라!

아사달, 보주를 앞에 놓고서 마지막 발원심을 내기 위해 경건하게 마음을 모운다.
두 스님이 탐돌이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연신 구송한다.
아사달, 땀을 흘리며 보주를 꿰어넣는다.
이와 동시에 석가탑 전신에 하얀 빛이 쏟아지듯 내려온다.
‘아 으으 으 아 이 어~~ 으 어 어 어’ 범패소리가 나온다
이어서, 목탁소리와 함께 불국사 모든 스님들의 독경소리.
아사달, 석가탑 아래로 내려와 옷을 가지런하게 곧추 입고 합장 배례한다.
스님들, 석가탑 앞에서 우슬착지(右膝着地) 합장 공경하면서 ‘관세음보살’을 구송한다.

원 주 석가탑을 보십시오. 참으로 단박하고 힘이 차오릅니다, 스님!
강 일 과연 불멸의 법신이로다.

강일, 아사달에게 다가가 합장한다.

강 일 이 석가탑은 일심원력 발원심으로 이루어낸 대공의 혼꽃입니다. 대공께서
천년 만년 큰 공덕을 이루어셨습니다. 관세음보살.
아사달 (눈을 감는다.) 아사녀!

스님들의 구송과 목탁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
석가탑에 내린 하얀 빛무리가 윤이 나듯이 밝아진다.

17장

- 그리움은 서녘 노을로 지다. -

배경 그림으로 연못이 나타난다.
입성이 훨씬 정갈해진 아사녀, 연못을 바라보다가 실의에 젖는다.

아사녀 인간 이별 만사 중에 생이별이 가장 슬퍼.
서로 사랑하되 보지 못하는 배반의 시간

맏힌 시름, 흐트러진 근심 던져두고
 자나깨나 깨나자나 입을 못 보는 외로움만 쌓이니.
 보고파라, 임의 얼굴. 듣고파라, 임의 소리.

연못에 그림자 하나 떠오른다.
 아사녀, 연못 가까이로 가서 본다.
 수양버들 그림자가 흔들거린다.
 아사녀, 힘없이 돌아서서 불국사쪽을 바라본다.

아사녀 아, 왜 이리 더디 뜰까? 석가탑 그림자여, 이 아사녀의 마음을 가련하게
 여겨 황금이 돌에서 나오듯이, 명월이 구름에서 나오듯이 어서 떠오시라.
 한 삭 두 삭 석 삭……. 서라벌에 온 지도 벌써 석 달이 되어가는데 어
 찌하여 탑은 그림자를 보이지 않는 건가? 혹시 아사달에게 무슨 일이?
 아냐! 그렇다면 불국사 스님께서 말씀해주셨겠지. 아, 아사달! 어찌하여
 당신의 소식은 고요하기만 한가요?

빠꾸기 소리.

아사녀 빠꾸기도 제 짝을 찾으려고 저리 울고 있건만. 아사달! 나의 그리움이 야
 원 타인가요? 청산에 홀로인 나에게 어찌하여 정한만 쌓이게 하나요?

빠꾸기 소리.

아사녀 애달파라. 저 빠꾸기 소리여. 부디부디 그 소리에 이 아사녀의 마음을 실
 어다오. 불국사 담장 너머 아사달에게 나의 그리움을 전해다오.

행인이 들어온다.

아사녀 혹시 불국사 석탑은 다 되었나요?
 행 인 불국사 석탑요? 다보탑하고 석가탑을 말하는 게요?
 아사녀 네. 그 탑이 다 되었답니까?
 행 인 축성식한다고 스님들이 몰려들었다.
 아사녀 그림? (연못을 보며) 왜 그림자가 비추지 않지? 그림자가! (연못의 그림자
 를 찾는다.) 그림자가 왜 없는 거야? 석가탑! 석가탑!

행 인 (아사녀를 훑어보고는) 끝끝! 어지간히 미쳤군.

아사녀 아사달! 아사달을 보러가야 돼!

아사녀, 미친 듯이 나가려고 한다.

행 인 아사달? 불국사 탑을 쌓은 석공 말시오?

아사녀 예, 그 분을 아시오?

행 인 알다마다요. 스님들이 대공이니 명공이니 하면서 그 사람 재주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답디다. 헌데 댁은 누구시오?

아사녀 그 분을 만나려고 백제땅 왕궁에서 온 아냅니다.

행 인 아내? 쫓쫓.

아사녀 왜 그러시오?

행 인 당신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미 다른 여자랑 마음을 맞췄다고 하더이다.

아사녀 네? 그게 사실입니까?

행 인 서라벌에서 귀 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문을 죄다 들었을 거요.

아사녀 아, 아사달! 그럴 수가!

행인, 아사녀를 안 되었다는 듯이 보면서 나간다.

무대 상단, 직소가 나타난다.

직 소 (이글거리는 웃음을 지으며) 아사달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

아사녀 (도리질을 친다.) 그럴 리가 없어!

아사녀, 한동안 넋을 놓고 앉아 있다.

잠시 후, 일어나 연못가로 간다.

아사녀 이승에서의 인연이 끝났단 말인가. 그렇다면 죽어야 한다. 저승에서 다시 아사달의 혼백을 기다리면 즐거이 찾아오겠지.

아사녀, 신발을 벗고 결연한 모습을 짓다가 이내 연못으로 뛰어든다.

아사녀 아사달!

아사녀, 연못으로 몸을 던진다.

아사녀가 연못에 빠지는 물소리.
달금과 죽죽이가 들어온다.

죽 죽 방금 무슨 소리가 났는데?
달 금 무슨 소리?
죽 죽 무엇이 연못에 빠지는 소리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요? 어? 저기?

달금과 죽죽이가 아사녀의 신발을 본다.
두 사람, 놀란 표정이다.

죽 죽 누가 연못에 빠졌나 봅니대요, 아가씨!

종장

- 슬픈 환상, 나는 너를 여의지 않았어. -

아사달, 뛰어들어와 아사녀를 찾는다.
아사녀가 벗어놓은 신발을 보고는 미친 듯이 울부짖는다.

아사달 이 꽃신! 아사녀의 이 꽃신! 나를 찾아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단했으면 이 고운 꽃신이 너털너털해졌을까? 그 고단한 길에 마음인들 평안했겠는가? (연못을 향해 소리친다.) 아사녀!
돌에도 꽃이 피거늘, 좀더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아사달, 목이 매여 소리를 내지 못한다.

아사달 아사녀!

멍하니 서 있는 아사달.
문득 앞산 바위가 쨍하니 움직이는 소리가 신비롭게 울려온다.
아사달, 고개를 들고 바위를 본다.

아사달 부처님!

바위가 부처의 형상을 보였다가 사라지고 아사녀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아사달 (눈을 부비며) 아사녀? 아사녀!

아사녀의 형상이 사라진다.

아사달, 바위 쪽으로 달려가 바위를 더듬더듬 만진다.

아사달 (허탈한 모습) 아사녀!

아사달, 갑자기 망치와 정으로 바위를 새기기 시작한다.

달금과 죽죽이가 들어온다.

죽 죽 어? 아가씨? 저기 좀 보세요?

달 금 아, 아사달님!

바위를 새기는 아사달, 사로잡힌 영혼의 모습이다.

바위가 서서히 아사녀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달금이 바위에 새기는 형상을 본다.

달 금 저건? 불국사 앞에서 만났던 그 사람!

죽 죽 (자세히 본다.) 어? 그 거지가 맞습디다요. 그 거지가 왜 저기로 들어갔나?

달 금 아사달님의 부인이구나. 그 분이 아사달님을 만나러 여기까지 오셨어!

죽 죽 예? 그럼? 아가씨는 공연히 헛물만 켜지 뭇니까요? 미워 죽겠네!

달 금 사랑하는 사람은 미움이 없어!

죽 죽 아가씨! 저기, 저 여자가 살아있는 것 같습디다요.

달 금 저건 돌조각이 아니야! 아사달님의 혼꽃이야. 얼마나 간절했으면 바위에
혼꽃을 피울까?

달금, 힘없이 나간다.

죽죽, 한동안 바위의 아사녀 형상을 바라보다가 나간다.

죽 죽 아가씨! 달금이 아가씨! 이젠 집에 돌아가시는 겁니다요.

아사달, 비장한 슬픔을 깊이 들이마신다.

아사달 아사녀! 나는 너를…… 결코 여의지 않았어!

바위에 새겨진 아사녀의 신비로운 표정이 환하게 빛돌아 오른다.

<막>

